

## 現代 패션에 나타난 고저스(Gorgeous) 이미지에 關한 研究

- 中世 비잔틴 時代의 이미지를 中心으로 -

鄭 潤 姬

大邱가톨릭대학교 패션産業學專攻 講師

## A Study of Gorgeous Images in Modern Fashion

- Focus on Byzantine Empire in the Middle Ages -

Jung, Yun-Hee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our separate elements-sublime beauty, elegant beauty, mysticism, ornament-which appeared in materials, patterns, colors, silhouettes, details, and accessories, laying stress on luxurious, brilliant, mysterious feelings on Gorgeous Images appeared as trend theme of modern fashion by mixing religious mysticism of the Byzantine Empire.

Mysticism element is using the effect of splendid and gorgeous colors from the Orient rather than forms. And a philosophy of abundant colors in mosaics, which are seen in art form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s, etc., shows that it creates some visual rooms for religious spirits.

Influenced by the fashion of the Greco-Roman style, the elegant beauty element is expressing abundant comfort and elegant feminine lines that are from creases, and it is also emphasizing natural beauty which seems to slip down by displaying the splendid images of Gorgeous as drapes that fit a body.

Ornament element was reflecting an inspiration from the splendid and brilliant culture of religion in the Byzantine Age. Therefore, it was appeared as a style filling the whole with bulky silks, splendid ornamental materials embroidered in gold or silver thread, the complicated geometric patterns that are two-dimensional and dignified, and so on. It was decorated with crosses which represent Christianity as a motif, and also it emphasized the splendor of the Byzantine and dazzling splendid images of Gorgeous by using accessories decorated with various jewels.

The elements of sublime beauty are showing the beauty adding humble and majestic images to it as designs sought by spiritual values or intrinsic values.

Those designs, so to speak, have pretense which does not allow to expose a body and plain pure feeling, so that they are showing some abstinent styles in a solemn atmosphere, with most details removed.

We can say the Fashion Theme appearing in Modern Times is the result from representing by combining various factors of the times with formative beauty through creative works for aesthetic expression.

The moderners are requiring new designs which is possible to meet their individualities, in addition to their outstanding fashion senses. From this point of view, a variety of textiles, patterns, and colors in the Byzantine have a great meaning to fulfill people's various desires as interesting elements.

**Key words:** aethetic features(미적특성), byzantine(비잔틴), gorgeous(화려한), religion(종교)

## I. 서론

오늘날의 패션은 그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급진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패션은 인간 내면의 사고의 표현일 뿐 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 즉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sup>12)</sup>

복식은 한 시대의 일반적인 정신적, 도덕적 관념이나 취향, 그리고 문화현상인 시대의 영향을 받아 그 시대의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조형예술품이다.<sup>3)</sup> 그러므로 패션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시대사조, 생활양식 및 예술양식의 관계를 포함하여 고찰할 때 더욱 가치 있다고 하겠다.<sup>4)</sup>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패션은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패션 테마가 생성되어 보다 조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급변하는 현 시대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서 받아들여지는 조형의 의미는 미적 감정의 표현으로 아름다운 물체나 물질을 가지고 인체를 장식하려는 본능적인 장식적 욕구에서 시작한다. 현대에는 의복을 입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는 것은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미적 표현의 의지<sup>5)</sup>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미적 표현은 인간 중심의 자아 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의상을 통해 다양하고 개성적인 형태의 디자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993년 8월 Vogue誌에서 대중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영(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중세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Promo styl, Nelly Rodi 등 세계의 유수의 정보지들은 '98/99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로 중세풍을 중요한 테마로 예측하였고,<sup>6)</sup> 01/02 가을·겨울 Interfashion Planning에서도 인간 중심의 본능적이고, 엄격하고 극도로 금욕적인 종교이념과 신비스럽고 장식주의적인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는 표현을 보여 주었고,<sup>7)</sup> 패션부분에서는 독특하게 재구성된 중세 비잔틴의 종교적 신비로움과 다양하게 그리고 화려한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된 것을 여러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테마의 한 흐름 속에 나타

나고 있는 중세 비잔틴 시대 복식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패션 테마의 흐름을 조형적인 특성과 그 시대의 종교적인 이념이 전하는 색채감과 화려하고 중후한 이미지의 표현을 파악하는데 있다.

미의 개념은 실제로 더 넓은 의미의 미적(Aesthetica)인 것으로, 미의 범위는 비극적이고, 해학적이고, 희극적이고, 우아하고, 기괴하고, 진기하고, 추(醜)한 것 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에 대한 관점은 점차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거쳐 점차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존중되었다.<sup>8)</sup>

금세기 초기까지 독일의 미학에서 주요한 과제로 취급되었던 미의 유형(類型)은 순정미,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골계미, 추(醜)로 나누는데, 이러한 미의 유형 분류는 미학상의 미의 기본형 혹은 미적 범주, 미의 개념이라고 한다.<sup>9)</sup>

미의 유형에서 분류한 숭고미와 우아미를 비잔틴 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 자리잡았던 종교적인 요소와 결부시키고 또한, 비잔틴시대의 가장 화려했던 복식문화와 종교적인 색채를 믹스하여 현대의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고저스(gorgeous) 이미지에 맞추어 소재, 문양, 색상, 디테일 및 장식효과 등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저스(gorgeous)의 특징을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4가지의 미적인 요소 즉, 숭고미 요소, 우아미 요소, 신비적 요소, 장식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범위는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s/s와 f/w fashion collection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연구방법은 국내외의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대 패션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 분석은 Bazaar, Book Moda, Collections, Fashion News, Vogue 등의 패션 전문지와 www.firstview.com의 내용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 II. 비잔틴 시대 배경 및 고저스(Gorgeous) 이미지

본 장에서는 현대 패션의 조형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고저스(Gorgeous)의 이미지를 고찰하기 앞서 먼

저, 서양복식사의 한 흐름인 비잔틴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고저스(Gorgeous)의 개념 정의와 현대 복식과의 조형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중세 비잔틴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 시대에 입혀진 복식양식의 재질과 문양, 색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잔틴시대의 실루엣이나 아이템을 활용한 형태를 제시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화려하고 신비한 이미지로 강조된 표현을 고저스(Gorgeous) 이미지와 접목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 1. 비잔틴 시대의 배경

비잔틴(Byzantine)제국이라는 명칭은 수도 비잔티움(Byzantium-고대 그리스의 도시)에서 나온 것으로 동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AD 395년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과 완전히 분리되어 정통적인 로마 제국의 계승자로서 1453년 오스만 터어키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독자적인 국가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동양과 서양의 접촉 지점으로 상업, 군사상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중요 도시로 그 당시 유럽, 아시아 대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비잔틴 제국의 문화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로마 제국의 정치적 전통 위에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 사상, 여기에 동방적인 요소가 융합하여 독자적인 양상을 형성한 것이다. 이것은 11~12세기의 로마네스크 문화, 15~16세기의 르네상스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역대 황제들은 자신들이 로마 아우구스투스 이래의 황제의 계열에 있어 정통이며 우주의 최고 권력을 대행한다는 신념을 갖고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제국 전체의 기풍이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였고, 정신적 세계 제국의 이념을 대표하는 기독교의 교리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종교는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며 그 이념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통하여 조각이나 건축 등의 예술품 및 복식으로 표현되어 왔다.<sup>10)</sup>

종교적인 색채는 비잔틴 제국의 건축 및 조각, 회화 등 예술양식에서 두드러진다. 비잔틴 시대의 기독교는 처음에는 비천한 대중의 종교였으나 점차 상류계급의

종교가 되어 비잔틴 문화의 지침이 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현실생활의 수도(修道)를 의미하는 정숙 및 금욕의 풍조가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요구되었으나, 제국이 번성해 갈수록 그리스도의 권능 및 천국의 영화(榮華)를 나타내기 위한 장엄하고 화려한 양식을 취하게 되었다.

비잔틴의 문화는 그리스적인 헬레니즘(Hellenism) 문화에 동방적인 요소를 취하였다. 이 동방적 성격은 비잔틴 미술에 종교적, 신비한 성격을 가미하였고, 미술의 주제는 종교였으며 동방의 초절신관(超絶神觀)과 절대 전주정체(專主政體)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궁정풍의 기독교 미술이었다.<sup>11,12,13)</sup> 종교 예술은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영적으로 깊은 미적 감동을 갖게 하고 있다.<sup>14)</sup>

이처럼 비잔틴 시대의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감동은 풍부하고 화려하게 채색되어 표현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성당 안의 벽면과 바닥에 다채로운 컬러로 장식된 모자이크 양식에서 중세 비잔틴적인 추상세계와 신비로움과 동방식의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2. 고저스(Gorgeous) 이미지

우선 고저스(Gorgeous)의 어원을 찾아보면 고대 프랑스어의 gorgias에서 gorge(목)+ous(자랑으로 목이 부풀어 오름)가 합쳐진 단어로 “눈부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5)</sup> Gorgeous의 사전적인 의미는 화려한, 호화스러운, 화사한, 찬란한, 신비한, 눈부신<sup>16)</sup>뜻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저스(Gorgeous)는 화려하고 성숙한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기독교 종교 신앙에서 보여주는 엄숙함과 신비로움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화려하거나 색상대비가 강하거나, 광택이 있고 화려한 질감의 소재, 큰 리본이나 프릴 등을 사용함으로써 절제된 장식을 지향하는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성숙한 이미지에 잘 어울리며, 포근한 이미지에도 무난하다.<sup>17)</sup>

### 3. 비잔틴시대의 복식 양식의 특징

#### 1) 비잔틴 시대의 직물 양식

비잔틴 제국에서는 직물공업, 금속이나 유리제품의 제조업 및 세공업 등이 매우 발달했는데 특히 직물은 비잔틴 제국을 번영하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sup>18)</sup> 그레코-로만(Greco-Roman: 그리스와 로마의)풍의 복식에 동양의 영향을 받아 풍부한 색상과 고급스러운 광택이 많이 나는 직물인 실크를 사용하고 자수와 보석 특히 진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복잡한 무늬와 아름다운 색조의 브로케이드(brocade), 다마스크(damask) 외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 화려하게 직조한 두꺼운 견직물과 얇은 실크를 의상에 사용하였다.<sup>19,20)</sup>

<그림 1>은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와 그의 시종들로 그리스의 기본형이 발전된 팔루다멘툼(paludamentum)을 걸치고 있는데, 부드러운 드레이퍼리를 주어 <그림 2>는 Otto 2세가 착용한 의복으로 다채로운 컬러로 단장식 된 브로케이드(brocade)와 기독교의 십자가 모티프가 황금색으로 수놓아진 것을 착용하고 있다. 풍요로운 비잔틴 제국의 생활은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직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비잔틴 시대의 문양특징

각 문양은 자연의 모습을 묘사, 구체화하고 미의식의 표현성에 문양으로서의 미적 가치가 있다.<sup>21)</sup> 중세

시대에 나타난 동식물 문양과 기하학 문양 등이 자주나 패턴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나타나고 특히 십자가의 모티브와 성모자상을 문양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직물이나 장식품 이외 모피의 사용도 많았다. 담비, 족제비 등의 모피가 의복이나 코트의 안감, 단장식으로 쓰였다. 가장 진귀한 흰 담비는 순결의 표시로 최고의 성직자가 입었다.<sup>23)</sup>

중세 비잔틴의 가장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한 직물은 금, 은사를 넣어서 짠 호화로운 광택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재질의 브로케이드(brocade), 라메(rame) 등의 직물에서 느낄 수 있다.<sup>24,25)</sup> 옷감의 표면에 빛을 반사하고 광택이 나는 브리리언트(brilliant)재질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교적 주제를 다룬 성당내부의 모자이크 벽화는 여러 가지 색상의 돌, 유리 조각을 사용하여 짜 맞추어 광선의 반사작용으로 인한 신비로운 느낌과 함께 공간의 확대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림 3, 4>는 비잔틴의 가장 화려한 복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신체를 다 감싸는 금욕적인 형태의 의복과 고유한 상징의 의미를 지니는 문양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비잔틴 직물은 전체가 무늬로 채워져 있는 것이 많으며 무늬의 내용과 특징이 있는데, 종교적인 주제로 동물 문양이 쓰였는데 이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즉,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비둘기나 물고기는 성령, 독수리는 힘, 새는 신성한 정신,



<그림 1> Justinianus와 시종들(647년)



<그림 2> otto 2세(972년)



〈그림 3〉 모자이크, 요한2세 콤네누스 황제와 왕비사이의 성모 마리아, 성소피아 성당, 1118년경



〈그림 4〉 테오도라 왕후와 시녀들(547년)

뱀은 타락 등을 의미하고 있다. 기하학적인 문양은 연속무늬를 이루고 있는데 직사각형은 예루살렘을, 원은 영원한 안녕과 무궁함을 상징하고 있다.<sup>21)</sup>

비잔틴의 문양은 무늬와 공간과의 관계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고 그리스 문양의 경쾌함에서 오는 우미(優美)함에 비해 눌러 박은 그림과도 같이 평면적이고 무게 있게 보이는데 그 특징이 있다. 문양은 모든 장신구 및 직물의 모티브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고대 오리엔트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과 조화시키는데 특색이 있다.

비잔틴의 문화는 그리스적인 헬레니즘(Hellenism) 문화에 동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의 우아한 드레이프성을 강조한 스타일과 요소 하나 하나가 고급스런 존재감을 보다 중후하고 화려하게 연출해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이미지로 스타일에 관계없이 전통적으로도 현대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 3) 비잔틴의 색채 특징

비잔틴의 실크는 그 품질이 우수하고 색채 및 문양이 화려하여 비잔틴 제국의 생활문화, 특히 복식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초기엔 황제들이 견직물과 붉은 보라색 염료 및 금자수품(金刺繡品)의 제조와 판매를 독점하였다. 비잔틴 복식은 이후 오랫동안 유럽제국의 궁전복·귀족복의 축제복·성직자복에 영향을 미쳤다. 종교적인 금욕주의에서 몸을 완전히 감싸

고 드러내지 않는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모자이크의 경우에는 로마의 풍습을 따라 동식물, 추상, 수렵, 일상의 풍속무늬와 성당안의 종교적 주제를 다룬 모자이크(mosaic)<sup>26)</sup> 벽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비잔틴 시대의 의상은 스스로 빛을 나타내고 색채·광택의 화려함이 강조됨에 따라 모자이크(mosaic)화적인 것이 특징이다.<sup>27,28)</sup>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종교적인 의미를 가장 많이 함축하고 있는 비잔틴시대는 강한 장식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비잔틴 복식에 쓰인 색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백색은 순결을, 청색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죄를 씻어 정(淨)하게 하는 신성함을, 적색은 신의 사랑을, 붉은 보라색은 위엄을, 녹색은 영원한 젊음을, 황금색은 덕이나 선행, 밝은 황색은 풍성함, 푸른 보라색은 겸덕(謙德)을 상징했는데,<sup>29)</sup> 이처럼 풍부하고 다채로운 색상들은 귀족이나 상류계급의 의상에서 볼 수 있고 현대의 패션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감각의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 4) 비잔틴 시대의 장신구

비잔틴은 직물이외 금이나 유리 세공업이 발달했고, 그리스풍과 동방풍의 장신구가 전래되어 보석의 종류도 다양하고 기법도 매우 정교하여, 우아하고 사치스러웠다. 비잔틴 시대 만큼 보석으로 장식한 시대는 없었을 정도로 타블리온, 목걸이, 귀걸이, 등에 많은 보석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위의

상징이었고, 교회의 신비로운 융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장신구의 전체적인 모양은 보석을 많이 사용하여 색이 다채롭고 세공의 규모가 비교적 컸다.<sup>30,31)</sup>

###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고저스 (Gorgeous)의 특징

현대 패션에 표현된 고저스(Gorgeous)의 특징을 다음 4가지 요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비적 요소

최근 ELLE지는 종교적 모티브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을 신비주의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다.<sup>32)</sup> 신비주의는 종종 종교적인 신비주의와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잔틴 시대의 신비성은 5세기부터 그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황금기를 맞이하였다.<sup>33)</sup> 여기서 중

교적인 신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태보다도 현란한 색채의 효과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징주의 화가들도 꿈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특유의 색채기법으로 자유로운 정서의 표현, 색채를 통한 표현의식과 연속적인 선을 사용한 강한 장식적 표현이 특징이고 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환상적인 모티브로 표현<sup>34)</sup>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동방과의 교류에 따른 문물의 유입과 풍속의 영향 등이 복식에 나타나고 있으며,<sup>35)</sup> 최근에는 서양세계에 팽배해 있는 과학적 물질 만능주의의 한계를 동양 사상에 나타나는 자연으로 회귀되는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비잔틴 복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색깔이다. 중세 비잔틴의 신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술양식은 스스로 빛을 나타내고 색채·광택의 화려함이 강조된 모자이크로 종교 정신의 시각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즉 동양에 대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연적이고 신비로우며 환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5>의 의상에서는 Versace가 디자인한 자켓으로 여러 가



<그림 5> Versace, '96 f/w,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그림 6> Givency, '00-01 f/w, Haute-Couture Fashion News No.64



<그림 7> J.P.G, '00 s/s, Paris, London Collections, vol.24



<그림 8> Versace '02-03 f/w, Haute-Couture Fashion News No.80

지 멀티 컬러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비잔틴 시대의 성당 내부 안에 장식된 모자이크에서 뿜어내는 빛나는 광채를 고저스(Gorgeous)의 현란하고 호화로운 이미지로 표현하였고, <그림 6>의 Givency가 디자인 한 원피스는 하나하나 짜 맞추어진 모자이크의 양식을 빌어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여러 크기로 면분할하고 종교적인 주제를 묘사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그 위에 비즈로 장식하여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더욱 선명해 보이거나 음영의 차이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 하고 있다. <그림 7>에 나타난 Jean Paul Gaultier가 디자인한 슈트는 전반적으로 핑크빛이 감도는 반짝이는 실을 사용하여 광택감을 준 소재로 고저스(Gorgeous)의 의상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8>에 나타난 Versace의 작품은 여러 가지의 선이나 색채로 면을 분할하고, 불규칙적인 기하학적 형태의 조각을 조합하여 재구성하고, 다양하게 프린트되어 있는 소재를 패치워크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에 고저스(Gorgeous) 한 이미지를 위하여 장식적인 비즈와 브레이드를 수놓았다.

## 2. 우아미 요소

비잔틴 제국의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로마적인 문화 요소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교적인 요소와 동양의 문화를 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감성적 인격의 감정표현이며 이것은 의식적이 아니라 자연적임을 필요로 하고 미적인 대상의 특성이 격렬하지 않고 움직임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파상적인 곡선 운동에 있다.<sup>36)</sup>

우아미의 특징은 고저스(Gorgeous)의 화려한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입체감을 중심으로 드레이퍼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아미에서 볼 수 있는 드레이퍼리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는 부정형 스타일의 주름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9, 10, 11>은 드레이퍼리의 유연한 부드러움과 경쾌한 리듬감을 보여주며, 생기에 넘치는 여성적인 아름다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우아한 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입체적으로 주름을 잡는 기법을 이용하여 리드미컬한 생동감을 주고 있다.

<그림 9>에 나타난 Chanel의 드레스 디자인은 얇고



<그림 9> Chanel '00-01 S/S  
Book Moda, No.56



<그림 10> Emanuel Ungaro Haute-Couture  
Book Moda No.56



<그림 11> Pierre Balmain '02-03 a/w Paris  
Collection Fashion News, Vol. 80

부드러운 실크 쉬폰을 사용하여 고대 로마의 팔루다멘툼(Paludamentum)의 풍부한 드레이퍼리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스타일이다. 고저스(Gorgeous)의 현란한 이미지에 맞춘 <그림 10>의 Emanuel Ungaro 디자인은 금·은사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직조된 레이스 소재를 이용하여 비잔틴 시대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직조물을 연상시킨다. 실루엣을 바디에 피트시켜 우아한 여성미를 보여주고, 햄라인쪽에 많은 여유의 드레이퍼리를 주어 리드미컬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에 나타난 Versace의 디자인은 소재적인 면에서 고저스(Gorgeous)한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원피스형의 가운데에 사용한 광택감 있는 소재와 팬츠에는 다마스크 소재의 사용은 더욱 더 호화로운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 3. 장식적 요소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식적 요소는 중세 비잔틴시대의 화려하고 찬란했던 종교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장식적인 취향으로 풍부한 색감과 장식적인 소재와 문양, 자수와 아플리케, 디테일 등을 보여 주고 있다. 실크에 금실로 수놓고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천에 보석과 진주를 사용하였다.

<그림 12>에 나타난 Marella Ferrera의 원피스 디자인은 비잔틴 시대의 예술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자이크 양식을 프린트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동방의 영향을 받아 풍부하고 화려한 컬러로 호화롭게 직조된 직물을 잘 나타내고 있고, <그림 13>은 Lecoanet Hemant의 의상은 금,은사를 넣어 직조한 화려한 이미지의 소재로 빛에 따라 광택감을 주는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14>의 Junko Shimada 작품에서는 수직으로 된 선안에도 문양을 장식하고, 기하학적인 모티브를 이용하여 전체에 꼭 찬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15, 16, 17>은 신체의 일부분에 비잔틴 시대의 종교적 모티브 십자가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유색의 보석으로 장식하고 있다. 종교의 엄숙한 이미지에 다채로운 화려한 컬러의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는 효과가 있다. 역시 금욕적인 형태의 의상에 기독교의 성스럽고 웅장함을 자수 놓거나 보석과 비즈로 장식하여 보



<그림 12> Marella Ferrera '00-01  
f/w, Collezioni



<그림 13> Lecoanet Hemant '98-99  
f/w, Mode et Mode, No.304



<그림 14> Junko Shimada '02 s/s,  
www.firstview.com





<그림 15> Jean-Louis Scherrer '01 s/s, Haute-Couture Fashion News No.68



<그림 16> Versace '97 f/w, Haute-Couture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97 f/w,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다 더 인간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의미를 주고 있다.

<그림 17>은 Jean Paul Gaultier의 f/w collection으로 dark color의 롱 원피스에 가슴 아래쪽부분을 다양한 컬러의 보석과 자수로 장식하여 그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 4. 숭고미 요소

숭고미는 미의 대상이 실제로 지각하기 어려울 만큼의 한계를 초월한 질(質)이나 양(量)을 지니고 있는 위대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숭고미는 자연이나 인간, 그리고 예술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곧 신의 창조적인 힘이나<sup>37)</sup> 숭고함은 그 힘과 활동이 위대하므로 그에 대하여 존중의 감정이 발휘되면서 일어나는 미적 감정이다.

숭고함은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루엣은 신체를 가리는 형태가 기본이며, 로마의 전통 위에 종교의 겸허하고 장엄하며 숭고한 이미지가 가미된 아름다움은 정신적인 가치 내지는 내적 가치를 통하여 추구되는 디자인 즉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금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8>에서는 비잔틴

의 복잡한 문양을 전체에 수놓고 눈에 띄지 않는 차분한 컬러로 중후하고 숭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9>는 John Galliano의 컬렉션에 나타난 사진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 강한 종교적인 금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0>에 나타난 Christian Dior의 작품은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소프트한 로프트(lofty) 재질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신축성이 가미되어 몸에 피트되는 디자인과 deep tone 계열의 와인컬러를 사용하여 품위 있고 고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21>은 D & G는 블랙의 컬러를 사용하여 기독교의 종교에서 오는 엄숙하고 숭고한 이미지를 잘 표현 해주고 있다. 역시 신체의 일부분도 노출시키지 않는 디자인인 것을 볼 수 있다.

## IV. 결론

현대의 디자인은 한 시대의 문화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추구하며, 정신을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미적 가치를 수용하면



〈그림 18〉 Jean-Louis Scherrer '99 f/w, www. firstview.com



〈그림 19〉 John Galliano '98 Fall, women's ready to wear www. firstview.com



〈그림 20〉 Christian Dior '98 Fall, Haute-Couture, www. firstview.com



〈그림 21〉 D & G '97 Fall, women's ready to wear, www. firstview.com

서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하는 외적인 조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과 다른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욕구는 그 시대에 따라 미적 가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현대적인 감각의 새로운 트렌드 테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비적 요소는 종교적인 신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태보다도 동방의 화려하고 현란한 색채의 효과가 많이 이용되었고 건축, 회화 등의 예술양식에 나타난 모자이크의 풍부한 색 절학은 종교정신의 시각적 공간을 창조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아미 요소는 그레코-로만(Greco-Roman)풍의 복식에 영향을 받아서 주름에서 오는 풍부한 여유와 우아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고저스(Gorgeous)의 화려한 이미지를 바디에 피트한 드레이프성으로 나타내어 흘러내리는 듯한 자연스러운미를 강조하고 있다.

장식적 요소 역시 중세 비잔틴시대의 화려하고 찬란했던 종교 문화에서 영감을 반영하여 장식적인 취향으로 동방에서 들어온 두꺼운 실크, 금·은사로 수를 놓아 호화로운 장식적인 소재와 평면적이고 무게

감 있는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문양 등을 전체적으로 다 채우는 형태로 나타났고,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를 모티브로 장식하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비잔틴의 화려함과 고저스(Gorgeous)의 눈부시게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송고미 요소는 종교의 겸허하고 장엄한 이미지가 가미된 아름다움을 정신적인 가치 내지는 내적 가치를 통하여 추구되는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가식과 꾸밈이 없는 순수한 느낌으로 최대한 디테일을 삭제한 엄숙한 분위기의 금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대에 나타난 패션의 테마는 미적 표현을 위한 창조적인 작업으로 그 시대의 다양한 요소들과 조형적인미를 접목시켜서 표현하여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뛰어난 패션감각과 함께 그들의 개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잔틴 시대의 다채로운 직물과 문양, 색채 등은 흥미로운 요소들로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Laver, James, Fashion Makes Social History: In the House of Worth N.Y.: The Brooklyn Museum, 1962, p. 6.
  - 2) Ewing, Elizabeth,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B.T. Batsford, 1978, p. 2-3.
  - 3) 박숙현 · 이숙현, 시대정신과 복식조형과의 상관성(제2보) -고딕시대와 모던시대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25-5, p. 880.
  - 4) 김주애, 복식의 포스터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4, pp. 213-228
  - 5)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1998, p. 18.
  - 6) 김태연 · 김미자, 중세풍 복식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금욕성, 자연성, 신비성, 세속성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의류학과, 1997, p. 96.
  - 7) Interfashion Planning, inc. 01/02 가을 · 겨울호
  - 8) 김영자, op. cit. pp. 31-32.
  - 9) W.tatarkiewiewicz, 손호주 옮김,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진사, 1990, p. 154.
  - 10)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공저, 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 154.
  - 11) 이정옥외,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pp.116-117.
  - 12)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p. 102-106.
  - 13) 민석홍, 서양사개론, 삼영사, 1993, p. 210.
  - 14) 이주선, 기독교 정신을 근거로 한 한국 현대 공예 연구-종교적 상징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pp. 92-93.
  - 15) Samhwa Modele Dictionnaire Fran aise-Coreen, 삼화출판사, 1994, p. 972.
  - 16) 정운길, Fashion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7, p. 31.
  - 17) 이현숙, 패션과 뷰티를 위한 코디네이션, 도서출판 신정, 2002, p. 72.
  - 18) 정홍숙, op. cit.
  - 19) <http://www.samsungdesign.net>, 삼성 패션 연구소, 2002.
  - 20) J. 앤더슨 블랙 · 매쥬 가랜드, 윤길준 역, 자작아카데미, 1997, pp. 87-88.
  - 21) 정홍숙, op. cit. pp. 114-115.
  - 22) 이정옥외, op. cit. pp. 126-127.
  - 23) 김영자, op. cit. pp. 182-183.
  - 24) 이정옥외, op. cit.
  - 25) 이경희 외, 패션디자인발상, 교문사, 2001, p. 124.
  - 26) 모자이크(mosaic)는 여러 가지 빛깔이 나는 나무, 동, 유리, 조개껍데기 따위의 작은 조각으로 맞추어 도안, 회화 등으로 나타낸 것 또는 그런 미술 형식으로 색깔있는 돌, 유리, 조개껍질 등의 작은 조각들을 촘촘히 붙이는 표면장식예술이다.
  - 27) 정홍숙, op. cit.
  - 28) 김현식, 세계미술대전집, 동아출판사, 1985
  - 29) 정홍숙, op. cit.
  - 30) 정홍숙, op. cit. pp. 114-115.
  - 31) 이정옥외, op. cit. p. 126.
  - 32) ELLE, 1998년 3월호, p. 129.
  - 33) 이예영 · 김미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세기말적 신비주의, 한국의류학회지, 23-8, 1999, pp. 135-136.
  - 34) 김영자, op. cit. p. 35.
  - 35)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 123.
  - 36) 김현주, 김문숙, 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근대복식(1880~1910년대)과 현대복식(1990년대)을 중심으로 -, p. 106.
  - 37) <http://www.hkinterior.co.kr/romantic.htm>
- (2002년 10월 28일 접수, 2002년 11월 19일 채택)